

LG, 플라스틱 OLED 스마트폰 출시

LG디스플레이와 4/4분기 출시 준비 ... 스마트폰 4500만대 판매 목표

LG전자(대표 구본준)는 플라스틱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스마트폰을 2013년 4/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4월24일 발표했다.

LG전자 윤부현 MC사업본부 경영관리담당 상무는 4월2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개최한 2013년도 1/4분기 영업실적 설명회에서 “플라스틱 OLED 스마트폰을 LG디스플레이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출시시점은 4/4분기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부현 상무는 플라스틱 OLED 스마트폰의 성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13년 스마트폰 판매실적을 4500만대로 예측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정도현 부사장은 “2012년에는 2/4분기에 100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1/4분기에 1000만대를 팔았다”며 “추세대로라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4500만대 전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옵티머스G의 후속작인 옵티머스 G2의 조기 출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어 “옵티머스 G2는 하반기 전략모델이기 때문에 출시일정도 가능한 앞으로 당기려고 한다”며 “옵티머스G 프로의 해외출시 시점과 겹치지 않도록 적절히 배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25>